

한국어의 초점사 -도는 양보표지인가 역동표지인가?

이예식*†
경북대학교

Yae-Sheik Lee. 2002. Is the Focus Particle -to in Korean a Concessive or an Additive Marker?. *Language and Information* 6.2, 15-32. There exist numerous previous analyses such as Hong (1992) on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the so-called delimiter -to in Korea. These analyses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first argue that the delimiter -to is polysemous so that it delivers either additive or concessive meaning; the second contend that it is monosemous and only conveys emphatic or concessive meaning. The current analysis mainly focuses on its two roles with regard to focus and its meaning.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 different analysis is proposed that it serves as an indicator of the presence of a type of focus which is hosted mainly by the expression it attaches to. Furthermore, it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additive force, and the seemingly relevant emphatic or concessive import is derivable from an emphatic or concessive illocutionary operator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focus indicated by -t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delimiter -to, concessive, additive, emphatic, focus, focus operator, illocutionary operator, 양보표지, 역동표지, 초점사, 특수조사 -도

1. 서론

한국어의 특수조사 -도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그 중, 홍사만 (1992)이 가장 대표적인 국어학 쪽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홍사만은 -도의 쓰임을 11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쓰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亦同을 나타내는 것과 둘째, 양보 내지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김종택 1990). 영어의 경우를 보면, 이 두 쓰임은 각기 다른 어휘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즉, 역동의 표시어로는 *also*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보나 강조의 경우는 *even*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yaesheik@knu.ac.kr

† 이 논문은 2001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의 기본 내용은 현대 문법학회 (2002), 한국 언어정보학회 (2000), 한국언어학회 (2001) 등 국내 다수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들 학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도움말을 받았으며, 특히 최재웅, 강범모, 이정민, 김용범, 위혜경 교수님의 도움말이 본 논문을 더 다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세 분 익명의 심사자들의 제언과 수정이 본 논문 내용을 더 명료하게 기술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물론 나머지 결점들은 전적으로 필자의 것이다.

근자에 와서 영어학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특수조사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초점현상을 현대 초점의미론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되었다. Lee, Young-Sook(1993)에서는 부정극어 *아무*와 늘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수조사 -도는 영어의 *even*에 해당하는 강조 초점사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Lee, Chungmin(1996)에서는 *아무라도*에 나타나는 -도의 쓰임에 주목하여 양보의 표지라 분석하고 있다. 영어학자들의 분석의 공통점은 이들이 붙은 표현은 초점이 오는 초점표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초점이론(Alternative Semantics로 불리는 Rooth(1985)과 명제 구조화이론(Structured Meaning Approach)이라 불리는 Stechow(1990), Krifka(1992)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특수조사인 -도가 보이는 양보/강조의 자료를 중심으로 -도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는 기본적으로 역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초점사임을 밝히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대 초점이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둘째, 다른 특수조사들과 같이 한국어 특수조사 -도도 초점사의 역할을 함을 보인다. 셋째, -도가 사용된 문장이 전달하는 양보나 강조의 의미는 맥락에 의한 화용적인 현상으로 도출된(derived)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2. 초점과 초점의 구현

2.1 현대 초점이론과 초점 운용자

현대 초점이론에 의하면 초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1) 초점의 정의:

- a. Functionalists' view: focus partitions two parts, foreground and background, and it identifies the former (Halliday 1970).
- b. The component of a pragmatically structured proposition whereby the assertion differs from the presupposition. Unlike topic, focus is, by definition, an unpredictable element of a proposition. (Lambrecht 1994).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서 초점이란, Halliday(1970)의 정의가 보여주듯이, 한 표현을 foreground(전경)과 background(배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며 초점은 전자인 전경정보 혹은 신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Lambrecht(1994)와 같은 기능주의자들의 견해도 이와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다. 즉, 초점이란 화제(topic)와는 달리 한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영어 예를 설명해보자.

(2)¹ a. John introduced Mary only to [_F SUE].

b. John always takes [_F MARY] to a party.

1. [_F X]의 표시는 X라는 요소가 초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초점이 떨어지는 범위가 X

위의 영어자료가 전달하는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2a)의 경우 John이 Mary를 어떤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단지 Sue에게만 소개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 (2b)는 누군가를 파티에 데려가는 상황에서 늘 John은 Mary를 파티에 데려간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를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3) a. Background: λx [introduced(j, m, x)]
 Focused: Sue

b. Background: λx [take-to-a-party(j, x)]
 Focused: Mary

Rooth(1985)와 같은 Alternative Semantics에서는 초점의 기능을 위에서 언급한 기능과 더불어 자매항(alternatives)을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3a)의 경우 John이 Mary를 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Mary에 떨어진 초점이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구조주의 초점이론에서 말하는 배경(background)에 해당한다.

명제 구조화이론(Structured Meaning Approach)라 불리는 Stechow(1990), Krifka(1992)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은 배경(background), 초점(focused part)와 더불어 초점 운용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 초점 운용자는 구조화된 의미구조를 정상적인 명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명제 구조화 이론의 기본적인 의미기술 도식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는다.

(4) 초점을 가진 문장의 세 구성성분

- a. F: 초점 부분 b. OP: 초점 운용자
- c. B: 배경 (background) d. 의미표시: OP(<B, F>)

위에서 언급했듯이 초점운용자의 역할은 (4d)에서 보여주듯이 초점에 의해서 구조화된 명제 “<B, F>”를 정상적인 명제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명제 구조화 이론에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이 초점 운용자의 의미 (semantics)를 정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점 운용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초점운용자

초점 운용자는 초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초점을 가진 문장을 해석할 때 항상 초점과 연관되어 해석되며 대체로 문장 내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첨사들이 이 초점 운용자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이다. 가령, (2b)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b' John always takes Mary [_Fto a PARTY]

(b')의 초점의 범위는 전치사구 전체가 초점범위이고 초점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2b)는 파티에 누군가 John이 데려가면 늘 Mary를 데려간다는 의미인 반면 (b')은 Mary를 어디에 데려가면 늘 다른 아닌 파티에 데려간다는 의미를 갖게된다.

위의 특징에 의하면 (2)와 같은 자료에서 초점 운용자는 *only* 와 *always*이다. 전자는 초점을 받은 표현 *Sue*와 연관되어 늘 해석되며, 후자는 *Mary*와 연관되어 해석된다. 이외도 영어의 경우 *also*, *even*, *at least*, *at most*, 등이 초점 운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초점을 가진 문장에서 (2)의 자료처럼 초점 운용자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6)에 주어진 예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Q: What did John eat for lunch?

A: He ate [_FCHICKEN].

명시적으로 초점 운용자가 주어진 경우의 초점을 ‘묶인’ 초점(**bound focus**)이라 하고 (6)과 같이 명시적 초점 운용자가 없는 경우의 초점을 ‘자유’ 초점(**free focus**)이라 한다. 자유초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illocutionary operator들이 자유초점을 묶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자유 초점이란 있을 수 없다 (Jacobs 1991, Krifka 1992, Hong 1995, Lee 1995).

명시적인 초점 운용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초점을 묶는 언표내적 운용자인 초점 운용자의 의미 (semantics)를 정의하는 것이 이 명제구조화 이론의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2)의 예의 초점운용자 *only*와 *always*의 의미를 정의해보면 아래와 같다.

(7) a. ONLY(<B, F>)=
 $\forall Y[Y \in \text{ALT}(F) \wedge B(F) \wedge B(Y) \rightarrow Y=F]$

b. ALWAYS(<B, F>)=
 $\forall Y[Y \in \text{ALT}(F) \wedge B(Y) \rightarrow B(F)]$

Jacobs(1991)와 Krifka(1992) 같은 명제구조화 이론은 (6)의 경우 언표 내적 운용자인 ASSERTION이 음성적으로는 비어(null)있지만 초점표현 CHICKEN과 연관되어 묶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래와 같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8) ASSERTION(<B, F>)= B(F) iff

- (i) $[B(F) \cap C] = C' \text{ and } C \neq C', \emptyset$
 (ii) $\forall Y[Y \in \text{ALT}(F) \wedge B(Y) \rightarrow B(Y) \leq_l B(F)]$

(8)의 형식적 표현에서 C는 대화가 진행되는 맥락을 반영한 명제들의 집합, 즉 대화자 상호간의 공유지식을 나타낸다. 위의 두 조건은 B(F)라는 명제가 적절히 단언(assert)되기 위한 적절성의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B(F)가 해당 대화 맥락(C)에서 정보적으로 유의미($[B(F) \cap C] = C' \text{ and } C \neq C', \emptyset$)하며, 둘째, B(F)는 다른 자매항으로 표현된 대체 명제보다 정보적으로 강한 주장을 담고 있($B(Y) \leq_l B(F)$)어야 적절한 단언이 된다.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맥락과 발화가 되어야만 (8)과 같은 언표내적 운용자 ASSERTION에 의해서 묶이는 자유 초점표현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²

2. 이를 (6)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John이 점심에 chicken을 먹었고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는

2.2 초점 강세와 초점범위

영어에서는 초점은 음성적인 초점 강세와 초점 운용자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발화에서 초점의 범위는 반드시 음성적인 초점강세를 가진 표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음의 예에서 초점강세가 동사 논항에 떨어지지만 그 자체로는 초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고 대화 맥락에 의해서 결정하여야한다. 이는 초점강세만 표시되어진 발화는 해석상 애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9) a. John loves MARY.
b. John give the book to MARY.

위와 같은 초점 강세가 실현된 발화만 가지고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을 각각 가질 수 있다. (9a)만 설명해보면, John이 누구를 사랑하나요?(Who does John love?)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9a)가 가능한 한편, 다른 의미로는 John이 그리고 다음은 무엇을 했지요? (What does John do next?)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능하다.

이런 초점강세의 발현과 초점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Selkirk E.(1984, 1995) 이며 다음과 같은 초점 영역 결정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10) a. 기본 초점 규칙: 초점강세가 오는 요소는 초점(초점자질이 부여된다)이다.
b. 절 초점 규칙: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요소는 초점 일 수 있다.
(i) 머리말 (head)이 기본 초점 규칙에 의해서 초점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도 초점이다.
(ii) 머리말의 논항이 초점인 요소에 포함된 구성요소도 초점이다.

위 규칙으로 그녀는 Mary가 다음은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Mary do next)라 대화 맥락에서 Chomsky and Halle(1968)의 NSR³이 잘못 예측하는 초점 실현과 초점영역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제성의 해석을 가진다. 그 이유는 만약 chicken과 beef를 먹었다면, John ate chicken and beef는 (6)의 명제보다 정보적으로 더 강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적절성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6)을 발화한 화자는 (6)을 John ate [_FCHICKen and BEEF]로 바꾸어 발화해야한다. 배제성과 초점과의 관계를 위한 더 많은 논의는 Szabolcsi (1981), Lee, Y-S. (1995), Wee(2002) 등에서 찾을 수 있다.

3. Chomsky and Halle는 다음과 같은 두 강세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a)복합어 강세규칙: 주 강세를 가진 가장 왼쪽의 모음에 주 강세를 부가한다.
(b)꺾 강세규칙: 최상위 구성소 내 (in a major constituent)의 가장 오른쪽 주 강세를 가진 모음에 강세를 부가한다.

위의 강세규칙은 대충 (11)과 같은 자료에서는 *publisher*의 첫 모음에 강세를 부여하게된다. 즉, 발화의 마지막 내용어에 강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NSR(Nuclear Stress Rules)은 (11)의 자료에서처럼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다.

(11) Mary sent her SKETCHes to the publisher.

위와 같은 발화에서 다음과 같은 맥락 즉, *To whom did Mary send her sketches?* 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일 경우는 물론 *PUBLisher* 과 같은 식으로 강세를 주어 발화할 수 있다.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어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최재웅(1996)의 특수조사-만이 부가된 경우의 초점 영역의 애매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행·최재웅(1999:184-188)에서는 상기 Selkirk의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면서 실제 음성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점 투사규칙⁵을 제시하고 있다.

2.3 특수조사와 초점표시

한국어의 경우 초점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12)⁶ 질문: 철수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답: (a) [_F 순이를] 사랑합니다.
 (b) [_F 순이] 사랑합니다.

위의 질문-답의 쌍에서 순이는 일반적으로 초점강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와 영어는 공히 초점의 실현에서 강세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수조사가 초점 강세를 가진 표현에 나타나는 특징이 영어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대문자로 된 부분은 주 강세를 가진 음절을 표시한다.
 5. 이민행·최재웅 (1999:188)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어 초점투사규칙을 제안하고 있으나 Selkirk (1995)의 초점투사규칙과 거의 동일하다.
 한국어 초점투사 규칙
- 수식어/핵심어 구조를 위한 투사규칙
 β 가 성분구의 핵심어이고, α 가 수식어인 [_F ... α ... β]과 같은 구조에서, α 와 β 두 구성 성분 중 항상 핵심어 성분 β 가 초점표시이다.
 - 핵심어/논항 구조를 위한 초점투사
 α 가 β 의 논항인 [_F ... α ... β]과 같은 구조에서, α 가 β 의 논항이고 α 와 β 사이에 또한 β 의 논항인 α' 이 나타나지 않을 때, α 가 초점 표지이다.
- 위 규칙의 타당성을 잠시 고려해보면, 위의 규칙은 대조강세(contrastive focus)의 경우를 설명하는 데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대조강세의 경우도 한국어의 경우 동사구가 초점영역을 구성하고 있을 때, 핵심어와 수식어 어느 쪽에도 초점강세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동사의 목적어인 논항을 제외한 동사 자체 즉, 동사구 핵심어에 초점강세가 실현될 수도 있다. 아래 예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서 진한 체로 된 부분은 초점강세가 온다는 의미이다.
- a. 고물차가 빨리만 달린다
 b. 철수가 문제를 빨리 파악한다. (그러나 해결은 잘 못한다)
6. Kuno (1973)이나 Lee J-K. (1991)과 같은 연구에서는 각각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 초점을 가진 말은 조사를 수반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면서, 격조사가 초점 표시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12b)의 경우처럼 격조사 없이도 초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격이 탈락되었을 때 본 필자의 직관으로는 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적 (informal)인 느낌을 줄 따름이다.

(13) (i) 의존형태소 (조사, 특수조사)

질문: 누가 왔니?/누구를 만났니?

- 대답: a.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오지 않았어요.
 b. [F철수-만] 왔어요.
 c. [F철수-는] 오지 않았어요.

(ii) 독립형태소

- a. 심지어 [F철수가] 오지 않았다.
 b. 단지/오직 [F철수가] 합격했을 뿐이다.
 c. 또한/역시 [F철수가] 왔어요.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e. 많아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iii) 독립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 a. 심지어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오지 않았다.
 b. 단지/오직 [F철수-만] 합격했을 뿐이다.
 c. 또한/역시 [F철수-도] 왔어요.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e. 많아야/기껏해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정도/이하] 잡았다.

위 자료를 더 자세히 논의해보면, 의존 형태소인 특수조사와 독립 형태소인 부사들은 둘 다 초점표현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아울러 초점강세를 가진 표현 혹은 초점표현의 뒤에 부가된 특수조사는 (13ii)와 (13iii)에서 관찰할 수 있는 초점 관련 부사들과 일정한 쌍을 이루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심지어라는 부사는 도/조차/까지/마저와 같은 의존 형태소인 특수조사와 쌍을 이루어 주로 사용된다. 아래 (14)의 자료는 그 쌍이 깨어졌을 경우 어색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14) 독립 초점사와 의존 형태소 초점사의 부적합한 조합

- a. ?심지어 [F철수-만] 오지 않았다
 a'. ??심지어 [F철수-정도] 오지 않았다.
 a''. *심지어 [F철수 이상] 왔다/오지 않았다.
 b. *단지/오직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합격했을 뿐이다.
 b'. *단지/오직 철수가 [F합격 이상] 했을 뿐이다.
 b''. 단지/??오직 [F철수-정도] 합격했을 뿐이다.
 c. *많아야/기껏해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이상] 잡았다.
 c'. *철수는 많아야/기껏해야 고기를 [F세 마리 -도/조차/까지/마저] 잡았다.
 c''. *철수는 고기를 많아야/기껏해야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도/조차/까지/마저] 잡았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_F새 마리-만] 잡았다.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_F새 마리-이하] 잡았다.
 e. *또한/역시 [_F철수-만] 왔어요.
 e'. *또한/역시 [_F철수-이상/이상] 왔어요.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한국어의 경우 초점 존재의 여부는 강제뿐만 아니라 의존 형태소인 특수조사 혹은 일단의 부사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Lee, Y-S.(1995)에서는 아래와 같은 초점 표시 쌍을 제시하고 있다.

(15) 초점 운용자(독립형태소)	초점사 (의존형태소)
심지어	-도/조차/까지/마저
또한	-도
단지/오직	-만
기껏해야/많아야	정도/이하
적어도	이상
??	-는/은
??	-가/이; 를/을

위에서 독립형태소인 부사는 영어의 경우처럼 늘 초점 표현과 연관되어 해석됨으로 초점운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존형태소인 특수조사는 초점강세를 가진 초점표현 혹은 그 일부의 구성소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초점 운용자로, 후자를 단순히 초점사로 편의상 명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조사인 초점사가 부가된 표현이 그 자체로 전체 초점표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초점 범위 내의 특정 표현을 지시하는 지를 정하는 것이다. 최재웅(1996)은 아래 예처럼 특히 -만이 강조용법으로 쓰인 경우 -만의 선행어이상의 범위를 초점범위로 취하는 애매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16) a. 길수가 영어만 잘한다.
 b. 고물차가 빨리만 달린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른 특수조사인 초점사들도 (16)과 같은 초점영역의 상위 구조로의 투사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7) 질문: 철수가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답: 철수는 심지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에 의해서 형성된 초점영역은 동사구이다. 따라서 (17)의 답으로 제시된 사법시험도는 합격했다라는 머리말의 동사구의 논항이며 이 동사구가 해당 초점의 영역이며 이에 포함된 초점의 일부이다. 우리는 여기서 초점사의 역할을 좀 추가적으로 부연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8) 초점사의 역할: 해당 초점이 대체항목(alternatives)을 형성 할 때 그 선행어가 대체항목 형성의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표시한다.

위의 초점사 역할에 대한 정의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선행어가 초점의 대체항목의 형성도입에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즉, (17)의 경우 사법시험에 초점사 -도가 부가됨으로서 철수가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체항목을 도입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일반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이와 비교가 되는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대체항목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우는 선행어 그 자체가 초점이 되어 동일한 의미 유형을 대체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 (19) 질문: 철수는 (점심으로 피자 외) 무엇을 먹었습니까?
 답: [F 햄버그도] 먹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대체항목은 (점심으로) 철수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된다. 특수조사인 초점사 -도가 부가된 선행어 자체가 초점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장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체항목 형성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초점사 -도와 그 해석

3.1 -도의 의미역할에 대한 기존 논의

특수조사 -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국어학자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수조사 -도의 의미 해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홍사만(1992)를 중심으로 한 국어학자들로서 -도는 유사 자매항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역동성(additive)과 강조성(emphatic)을 공히 나타내는 다의어적 분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Lee, Chungmin(1996)이나, Lee, Young-Sook(1993) 같이, 특수조사 -도는 강조 내지 양보의 단일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면서 기타 의미는 유도된(derived) 것으로 분석하는 부류이다.⁷ 본고에서는 -도의 의미적 역할은 기본적으로 역동성을 나타내며 다른 의미는 이 것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첫 부류인 국어학자들의 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강조 혹은 양보가 그 기본 의미인지 아니면 역동이 그 기본의미인지만을 논의하고자한다.

특수조사 -도는 강조 혹은 양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낸다는 측의 주장을 Lee, Young-Sook(1993), Lee, Chungmin(1996)의 논의를 중심으로 더 논의해보자. 전자는 한국어 특수조사 -도는 다음과 같은 영어 자료에서 초점운용자인 *even*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어의 *even*처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7. 사실 Lee, Y-S. (1994)에서는 특수조사 -도의 초점사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는 강조가 아니라 역동성(additivity)이며 다른 의미는 유도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20) a. He didn't (even) drink a drop of water yesterday.

a' 그는 어제 물 한 방울도 안 마셨다.

b. (Even) a genius cannot solve the problem.

b' 천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c. Mary doesn't (even) like any boys.

c' Mary는 아무 소년도 좋아하지 않는다.

한편 후자, Lee, Chungmin(1996:508)는 부정극어에 특수조사 -도가 오는 것에 주목하여 특수조사 -도의 의미적 역할을 양보표지(Concessive Marker)라고 주장하고 있다.

(21) a. 아무 돈이라도 좋다.

b. Mary 는 아무가 와도 환영한다.

c. 아무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난다.

위 두 연구는 공히 강조 내지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 -도와 그 선행어는 강조 혹은 양보의 해석에 기본이 되는 화용적 등계(pragmatic scale)를 도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가 강조 혹은 양보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화용적인 등계를 상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위의 -도의 의미적 역할에 대한 분석의 심각한 문제점은 -도가 쓰인 대부분의 예들은 역동, 즉 선행어의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이다. 즉, -도가 사용되고 양보나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는 Lee, Y-S.(1994, 199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도의 선행어가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내거나, 둘째, 맥락에서 선행어가 나타내는 개체가 특정 등계 상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가 위의 두 경우에 각각 해당한다.

(22) a. 대통령도 그 파티에 참석했다.

a' 순이도 그 파티에 참석했다.

b.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았다.

b'. 사과도 먹었다.

-도의 쓰임 중 (22a')과 (22b') 과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의 두 분석처럼 강조 내지 양보의 쓰임이 그 기본이라고 주장하면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많은 기존의 분석이 통합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 부분적인 분석에 그치고만 경우가 대부분이다.

3.2 강조/양보표현과 초점사 -도

만약 Lee, Chungmin(1996)이나, Lee, Young-Sook(1993)의 분석과는 달리 -도의 쓰임을 역동이라 주장한다면, 역으로 강조 내지 양보의 용법으로 사용된 -도의 쓰임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강조 내지 양보의 쓰임은 -도에 의해서 표출된 의미가 아니라 기타 맥락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는 의미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조와 양보는 어떤 표현이 전달할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은 대화참여자들에게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조 표현은 아래의 예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3) a. 천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b. 요즘 대낮에도 도둑이 설친다.
 c. 제자마저(도) 그 스승을 배반했다.
 d. 그녀를 백년가도 잊을 수 없다.
 e. 땡전 한푼도 너에게는 줄 수 없다.
 f. 오직 이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g.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곳이다.
 h.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다.
 i. 상상만 해도 즐겁다.
 j. 그 순간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위의 자료의 특징은 특수조사 -도와 -만의 선행어가 Lee, Chung-Min (1996)이나, Lee, Young-Sook(1993)에서 주장하는 화용적인 등계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보통의 경우 해당 등계 상의 다른 대체 항목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대화자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여기서 필수적인 사항은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선행어와 그 것에 의해서 도입된 (발생할 혹은 존재의) 개연성이 비교되는 대체항목의 존재이다. 그리고 (23)에 주어진 자료와 같은 주장을 들으면 청자는 강조 혹은 의외의 놀라운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강조표현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된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Lee, Y-S.(1995:160)에서는 강조단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

- (24)⁹ ASSERT_{emphatic} (<B, F, ALT_F>)(C): B(F)∩C iff
 the following felicitous conditions are met that

8. 위와 유사한 논의는 Kim, Y-B. (2002)을 비롯하여 많은 기존 연구에도 찾을 수 있다.

- (i) $\forall p[p \in \{B(F'): F \neq F' \wedge F' \in ALT_F\} \rightarrow B(F) \leq_C p]$
- (ii) $surprise(C)(B(F)) \wedge \exists F'[F' \in ALT_F \wedge \neg surprise(C)(B(F'))]$

상기의 강조단언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강조 초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내려진 것이다. 이 가정은 우리가 위에서 초점이론을 논한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도, -만과 같은 특수조사들은 초점사로서 초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타당성이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첫째 적절성 조건은 초점이 도입한 화용적 등계에 있는 다른 어떤 대체항목 보다 대화 맥락 (C)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낮거나 같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성 조건은 해당 발화 (B(F))는 대화맥락 (C)에서 대화자에게 놀라운 사실이며, 아울러 다른 대체항목 가운데 놀랍지 않은 대체항목도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24)은 이상의 두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표현만이 강조단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강조표현의 성립요건 중 화용 등계 상에 해당 표현보다 개연성이 높은 대체항목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조표현에 -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가 그 자체로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동, 즉 다른 선행어에 대한 대체항목 (alternatives)이 존재한다는 것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언어에서도 역동을 나타내는 첨사들이 강조(극단)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아래 예는 홍사만(1992:196)이 제시한 역동 의미를 나타내는 첨사들이 강조 내지 양보 표현에 사용된 예들이다.

- (25) a. 일본어 조사 -も

きる-も	木-から	落さる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9. 강조 단언 정의에서 화용적 등계에서 개연성의 강약을 단순히 기본개념 (primitive notion)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다른 개념 (예, 통계적 발생 빈도)에 의해서 정의하려는 연구도 있다 (참조 Kim, Y-B. 2002). 한편 Lee, Y-S.(2001:204)에서는 이 개연성의 개념을 대화자들의 인식적 지식(epistemic knowledge) 내에 존재하는 가능 세계들 간의 정상성 (normality)의 강약관계 (preordering relation)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정의하고 있다.

- (i) $OP_{emphatic} = \lambda C \lambda \langle q [if(q, p)], F \rangle [C \wedge B(F)] \text{ iff}$
- (i) $\exists F'[F' \in ALT_F \wedge \forall w, w' [w \in if(F, p) \wedge w' \in if(F', p) \rightarrow w \leq_N w']]$
- (ii) $\forall w, w' [w \in C \cap if(F, p) \wedge w' \in C \rightarrow w \leq_N w']$

위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24)의 강조단언의 정의와 같으나 비교되는 명제들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의 정상성(normality)의 정도로 명제들의 발생 개연성을 다시 정의했다는 점만 다르다. 즉 강조 표현이 참이 되는 세계는 대체 항목으로 상정된 명제가 참인 가능세계보다 늘 대화자의 인식적 지식 내에서는 덜 정상적 (less normal or more far-fetched)일 경우 해당 표현은 강조표현으로 관련 대화 맥락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가능세계의 정상성 정도 비교에 관해서는 Veltman (1995)를 참조.

그리고 surprise 라는 함수적인 개념도 기본개념으로 도입했다. 다만 이 함수는 대화 맥락과 명제를 그 논항으로 취하여 그 놀람움의 여부를 가려주는 일종의 특성함수 (characteristic function)과 흡사하다. 좀 더 그 특징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은 단조성(monotonicity)를 가지고 있다.

- (ii) $\forall p, q [surprise(C)(p) \wedge q \leq_C p \rightarrow surprise(q)]$

즉, 모든 명제 p, q에 대하여 맥락 C에서 p가 대화자에게 놀람움을 전달하고 q는 p보다 발생 개연성이 낮거나 같다면 명제 q도 또한 대화자에 해당 맥락 C에서 놀람움을 주는 표현이다.

- b. 중국어 어조사 也
 他一分錢-也 不肯白花
 다른 한푼-도 낭비하면 안 된다.
- c. 독일어 부사 auch
 Wer es **auch** immer sei
 그것이 무엇이랴도, ...

위의 예와는 달리 영어의 경우는 어휘적으로 순수히 역동을 나타내는 *also*와 강조 내지 양보를 나타내는 *even*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도가 사용된 표현의 일반적인 강조 혹은 양보라는 느낌 내지 의미 (force)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는 화용적으로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는 예외 없이 -도가 사용된 강조 내지 양보 표현은 하나 같이 -도의 선행어에 강한 초점강세가 온다는 관찰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e, Y.-S.(1995)의 주장을 따라, 강조단언 (Emphatic Assertion)이라는 언표내적 운용자 (illocutionary operator)가 이 초점을 묶는 초점 운용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24)에 주어진 정의처럼 이 언표내적 운용자의 의미는 그 초점이 도입한 대체항목으로 구성된 화용적 등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발화에 의해서 기술된 상황이 등계 상에는 극단적 경우이다. 즉, 발생 개연성이 낮아 청자로 하여금 그 주장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끼며, 그 것과 비교되는 그러나 개연성이 높아 청자에게 놀라움을 야기하지 못하는 대체항목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강조단언 언표내적인 발화에서 역동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반복하자면, -도가 사용된 강조표현의 강조 내지 양보의 의미는 강조 언표내적 운용자에 의해서 야기 (triggered)된 의미이지 -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의미는 아니다.

위의 주장은 -도의 출현이 강조표현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자료관찰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의 선행어가 그 자체로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강조 내지 양보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히 역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모호하다. 그런데 아래 예처럼 강조표현을 나타내는 초점운용자가 부가되면 강조표현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 (26) a. 철수도 파티에 오지 않았다.
- a'. 심지어 철수도 파티에 오지 않았다.
- b. John didn't come to the party, either.
- b'. Even John didn't come to the party.

(26a)의 경우 맥락의 추가적이 정보가 없으면 강조 혹은 양보표현인지 아니면 역동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의 초점과 연관된 초점운용자인 심지어를 명시적으로 부가하면 반드시 강조 혹은 양보 표현이 된다. (26a)의 경우 철수라는 사람이 그 파티에 누구보다 올 가능성이 높다는 맥락적 지식을 대화자가 공유하고 있다면 이는 또한 강조표현이 될 것이다. 이 맥락적으로 공유된 배경지식의 설정은 화용적으로 강조단언의 언표내적인 표현을 구성하는 충분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26b)와 (26b')의 영어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Krifka(in personal communication)는 영어 *even*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조 언표내적 운용자의 명시적 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7) a. EVEN (NOT(came-to-the-party(j)))
 b. *NOT(EVEN(came-to-the-party(j)))¹⁰

즉, 영어에서 강조 초점의 운용자인 *even*은 부정문에서 절대로 부정의 작용 범위보다 좁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even*은 언제나 의미적 작용영역의 이중성을 보이는 양화사나 부정과 같은 운용자보다 넓은 영역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바로 언표내적 운용자(illocutionary operator)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¹¹

-만에 의해서 강조표현을 형성하는 경우 위의 강조단언의 의미설정에 부합하는 설명이 가능한지 논의해보자.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최재웅(1996)의 설명을 수용하기로 한다. 즉, -만이 사용된 강조표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른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강조용법에 사용된 -만도

10. 한 심사자 중 본 논문에서 *even*이 언표내적 운용자의 명시적인 언급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가장 넓은 작용영역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어 충분한 증거가 되는 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also* 같은 경우도 *even* 처럼 *not*과의 상호 작용영역을 살펴보면 항상 *not*보다 넓은 작용영역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even*이 *not* 보다 넓은 작용영역을 보인다는 것만 가지고 언표내적 운용자의 명시적인 표출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 작용영역의 예는 *even*은 다음과 같이 여타 초점 운용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언표내적인 운용자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 i a. John even₁ only₂ drank [_{F1} [_{F2} WATER]].
 a'. *John only₁even₂ drank [_{F1} [_{F2} WATER]].
 b. John even₁ drank [_{F1} ONLY₂] [_{F2} WATER].
 b'. *John only₁drank [_{F1} EVEN₂] [_{F2} WATER].

위의 자료(Krifka 1992 참조)를 보면 복수의 초점이 오고 이와 연결되는 초점운용자가 복수로 올 때 *even*은 *only* 혹은 *also* 등과는 달리 항상 다른 초점 운용자 보다 항상 더 넓은 범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운용자들을 초점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also*와 같은 초점 운용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것이 언표내적 운용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 논문은 보고 있다. 심사자가 제시한 *not (also P)/also(not P)와 같은 예는 *also*가 *even*과 같이 언표내적 운용자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용영역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also*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 전제의 의미 때문에 항상 부정의 범위밖에 올 수밖에 없다. 전제는 부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 언표내적 운용자가 해당 발화의 의미기술에 있어 가장 넓은 범위의 작용영역을 갖는다는 논의는 1960년대부터 있어 왔다 (참조 Katz and Postal 1964). Ross (1970)에서는 언표내적 운용자가 음성적으로 비어 (null)이지만 의미적으로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로 아래의 영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i a. John_i declared that the paper has been written by Mary and himself_i.
 b. The paper has been written by Mary and myself.
 c. People like yourself are rare.

위의 (ib)의 *myself*가 가능하고 (ic)의 *yourself*가 가능한 것은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 즉 illocutionary force를 나타내는 가장 넓은 작용영역을 가진 언표내적 운용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 ii a. I_i declared to you that the paper has been written by Mary and myself_i.
 b. I declared to you_i that people like yourself_i are rare.

여전히 「자매항 설정 및 배제」라는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매항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대조 초점이 도입한 자매항처럼 그 수가 극히 적고, 해당 발화는 대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16)의 그의 자료를 다시 (28)로 언급해보자.

- (28) a. 길수가 영어만 잘한다.
b. 고물차가 빨리만 달린다.

그는 (28a and b)의 -만과 관련된 초점의 영역은 -만의 선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그 상위 구조 VP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28a)와 관련된 자매항은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못한다}일 수 있고, (28b)의 경우는 {제대로 못 달린다, 빨리 달린다}가 자매항의 집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의 고유한 의미적 기능인 자매항 배제에 의해서 각각 하나인 대체 자매항을 부정하고 남은 것은 발화 자체인 ‘영어를 잘한다’와 ‘빨리 달린다’가 각각 단언되고 이는 대화자의 인식적인 지식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 자매항이 기술하는 상황보다 훨씬 낮아 (24)에 주어진 강조단언의 적절성 요건을 아무 문제없이 지키고 있다. 따라서 분명 (28)의 자료는 강조단언의 자격이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3 강조와 양보의 유관성

한국어에서 강조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라는 초점사를 가진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보 표현의 경우도 아래 자료가 제시하는 것처럼 초점사 -(이라)도가 개입되어 있다. 차이는 -이라라는 요소가 때로는 더해진다는 점이다.

- (29) a. 비가 오더라도/와도 운동회는 한다.
b. 아무 표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c. 아무 동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라의 역할과 강조 표현에 사용된 -도와 양보표현에 사용된 -도는 동일한 쓰임을 갖는지 여부를 논의해보자. 우선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양보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30) König (1988:157):

- (i) Concessive relations are based on a prior experience of compatibility, correlation, connection or causality between two eventualities by other, conditional or causal, connectives. The assertion of two facts against the background assumption of their general incompatibility must be based on prior knowledge of compatibility and connections.
(ii) Another property [...] is that they (concessive conditionals), too, imply a general dissonance or incompatibility between one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antecedent (that is, the extreme case) and the consequent.

위의 König의 양보의 정의의 요점은 양보란 비교할 수 있는 두 사건간의 양립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대화자의 경험상 양립성이 떨어지는 두 상황 (eventualities)을 나타내는 표현이 한 문장 내에 주어지면 양보 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의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일단 양립성의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는 일정한 화용적인 등계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p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인지적 지식체계 내에서 p와 양립할 수 있는 일군의 상황 q를 설정할 수 있고 이들 상황들의 양립성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황 q 가운데서 양립성이 보통 이하인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p와 q상황을 동시에 한문장 내에서 나타내는 표현이 양보 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보 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보 문으로는 이상한 문장이 된 예들이다.

- (31) a. #날씨가 화창해도 운동회는 한다.
 b. #천재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c.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한다.
 d. #Although/Even if/ Even though Harry was born in America, he is a US citizen.
 e. # Even if I try very hard, I will manage.

위와 같은 양보 문의 성립조건을 Lee, Y-S. (2001)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32) $OP_{Concessive}(p, q)$ is felicitous w.r.t. the context C iff the compatibility of the situations of p and q, respectively, is highly unlikely than that of situations of r, alternatives to p, and q' of q.

※ p is compatible with q with regard to the context C iff $[p \cap q] \cap C \neq \emptyset$

(31)의 자료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위의 양보구문 형성의 적절조건 (31)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31a)를 설명해보면, 운동회가 진행되는 상황 p을 나타내는 운동회는 한다와 관련된 날씨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q인 날씨가 화창하다는 양립성의 정도가 보통 이상이므로 이는 (32)의 적절성 조건을 어겨서 양보문을 형성하지 못 하는 것이다. 반면, (29a)의 경우 운동회가 열리는 상황인 p와는 상식적으로 양립성이 매우 이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q, 즉 비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 전형적인 양보문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양립성이 이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체항목으로 취하는 양보문 역시 일종의 강조표현으로 본다. 그 이유는 (24)에 주어진 강조표현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성요건 모두 다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난다면 양보문은 일반 강조문과는 달리 자매항을 도입하는 초점 영역이 주로 절(clause)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은 홍사만(1992:196)이 -라고, -라니, -라서, -라면, -라야, 등의 -라의 쓰임과 같이 -라도의 -라도 동일하게 「단정표시」어미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 단정이란 절 단위에서 표현되는 것이고 이 끝을 표시한 어미 중의 하나가 -라이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양보 표지라 일반적으로 알

려진 -라도에서 -도를 분리해낼 수 있다. 극단의 표현을 선행어로 가진 -도가 출현하는 단언은 강조구문이라는 논의를 이미 했었다. 따라서 -라도에 의해서 표현되는 양보문도 일종의 강조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양보는 강조의 좀 특수한 경우를 표현하며 그보다 개연성이 높은 대체항목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강조개념에서 유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양보와 강조 개념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Lee, Y-S.(준비중)에서 더 상세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¹²

4.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도는 초점현상과 관련된 기능은 초점 표현 혹은 초점 영역 내의 어떤 표현을 지시하는 초점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그 선행어는 초점이 도입하는 대체항목의 결정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초점사 -도의 의미적인 역할은 강조나 양보를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동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조 내지 양보의 의미는 강조 초점을 묶는 언표내적 운용자의 의미에 의해서 유도된 의미이다. 셋째, 양보는 강조 개념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좀 특수한 강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중택 1990. 국어 화용론. 형설출판사.
 이민행·최재웅 1999. 초점.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강범모 외). 한신문화사. 157-179.
 최재웅 1996. 『-만』의 작용영역 중의성. 언어 21권 2호. 673-92.
 홍사만 1992. 국어 어휘의미론. 학문사.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oundation. In Lyons, J.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worth: Penguin Books, 140-165.
 Hong,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Questions and Alternativ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acobs, J. 1991. Focus ambiguities. *Journal of Semantics* 8. 1-36.
 Katz, J. J. and P. M. Postal. 1964.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s Description*. Cambridge, Mass. : MIT Press.
 Kim, Y-B. 2002. On Concession. *Language and Information*, Vol 6 #1. 71-90.
 Krifka, M. 1992.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s. *Informations Struktur und Grammatik* (Jacobs, J. ed.), 17-53.
 Krifka,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257.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IT.
 König, E. 1988.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 In Hawkins, A (ed.),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145-166.

12. 강조의 양보문에 대한 적절성 조건을 Lee, Y-S. (2001)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고 있다.
 $OP_{emphatic} = \lambda C \lambda \langle \lambda q [if(q, p)], F \rangle [C \wedge B(F)]$ iff

- (i) $\exists F' [F' \in ALT_F \wedge \forall w, w' [w \in if(F, p) \wedge w' \in if(F', p) \rightarrow w \leq_N w']]$
 (ii) $\forall w, w' [w \in C \cap if(F, p) \wedge w' \in C \rightarrow w \leq_N w']$

- Kö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ungmin. 1996.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Vol 18, 505-23.
- Lee, J-K. 1991. Case Markers and Focus in Korean. *Texas Linguistic Forum 32: Discourse*, 111-122. U. of Texas at Austin.
- Lee, Y-S. 1998. Types of Negative Polarity Items and Emphatic Expressions.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s*, Vol 5, 125-148.
- Lee, Y-S. 1994. Exhaustivity, the Scalar Principle, and Focus Semantics. *Proceedings of the 13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565-580.
- Lee, Y-S. 1994. Negative Polarity Items and the Semantics of the particles *-to* and *-na* in Korea.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9, 89-123.
- Lee, Y-S. 1995. *Scales and Alternatives: Disjunction, Exhaustivity, and Emphatic Particl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e, Y-S. 2001. Is the Focus Particle *-to* in Korean a Concessive or an Additive Marker? *Proceedings of SMOG 2001 Fall Conference on Linguistics*, 200-208. Kyungpook National U.
- Lee, Y-S. (in preparation). Derivability of Concessiveness from Emphatics.
- Lee, Young-Sook 1993. Licensing and Semantics of *ANY* Revisited. *NELS 22*.
- Rooth, M. E.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D. dissertation, U. of Massachusetts, Amherst.
- Ross, J. R. 1970. On Declarative Sentences. In *Reading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Jacobs, R et al eds.). Waltham, Mass.: Ginn.
- Selkirk, E. 1995.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asing. In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J. A., Goldsmith eds.), 55-69. Cambridge: Blackwell.
- Selkirk, E.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Stechow, A. von. 1990. Focusing and Backgrounding Operators. *Discourse, Particles Pragmatics and Beyond*. Amsterdam: John Benjamins. 37-84.
- Szabolcsi, A. 1981. The Semantics of Topic-focus Articulation.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513-541.
- Veltman, F. 1995. Default in Update Semantics. *J. of Philosophy Logic*.
- Wee, Hae-Kyung. 2002. Exhaustivity of Focus. Ms.

접수일자: 2002년 10월 25일
 게재결정: 2002년 11월 30일